

치 사

먼저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성심으로 준비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1993년 제정된 이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여년 동안 보고, 듣고, 읽은 사람들의 감동을 함께 나누며 현대사회에 불교언론문화 발전의 전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는 불교가 강조하는 정신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핵심적 방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변하듯이 우리 종단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가 가진 정신의 가치를 온전히 전하여,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사경을 통해 이웃에게 보시하면 그 공덕이 삼천大千세계를 칠보로 장엄해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이나 금속활자 인쇄본이 모두 불교의 경전이나 저술이라는 사실에서도, 매체를 활용하여 수승한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온 한국불교는 이미 20세기 초에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를 만들어 가르침을 널리 알려 왔습니다. 1910년 불교 최초의 잡지 <원종>을 창간한 이래 최근 100여 년 사이 수많은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해 왔습니다. 특히 방송분야에서 1990년 세계최초 라디오 불교방송국을 개국하고 1994년 불교 텔레비전을 개국하는 등 미디어를 통한 포교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가 언론매체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놀라운 비약은 있었지만, 형식과 질 그리고 다양성에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건의 미성숙,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지는 새로운 원력과 발원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언론문화상은 불교 언론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을 상찬하고 좋은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을 모두 함께 축하로 나누고 참석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언론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불스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해 주신 여러 언론인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2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